

(사)한국포장협회
제10기 포장기술관리사 실시
 9월 22일~12월 20일까지 11주간 실시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욱)가 이번 달 9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주간 제10기 포장기술 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을 실시한다.

2002년 정부(산업자원부) 사업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인력양성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포장협회는 3년간 전액 국고 지원으로 국내 포장인력양성을 위한 14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추진해 왔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개발된 11개 Volume(총 21개 과목)을 1주일 단위로 1개 Volume씩 수강자에게 우송(인쇄책자, CD우송)하며, 수강자들은 교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시험문제 및 논문을 작성하여 주관기관(협회)에 재발송해야 한다.

협회는 수강자들로부터 받은 유인물을 엄밀히 평가해 기록(총 평균 60점 이상 합격), 총 11개 Volume 중 10개 이상의 유인물을 제출한 수강자에 한하여 '포장기술관리사' 증심의 대상이 된다.

과락(60점미만)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시험의 기회를 주며, 전 과목 평가가 완료된

교육 내용 및 일정

주 별	연/월/일	과 목	교재발송	시험답안접수
제 1 주	08. 9. 22 ~ 27	• 포장개요 • 지류포장	08. 9. 22	08. 10. 4
제 2 주	08. 9. 29 ~ 10. 4	• 플라스틱 포장재	08. 9. 29	08. 10. 11
제 3 주	08. 10. 6 ~ 11	• 금속포장(제관) 및 유리병	08. 10. 6	08. 10. 18
제 4 주	08. 10. 13 ~ 18	• 목재포장재 및 포장부자재	08. 10. 13	08. 10. 25
제 5 주	08. 10. 20 ~ 25	• 방수 · 방습 · 방청 · 완충 · 중량물 포장기법	08. 10. 20	08. 11. 1
제 6 주	08. 10. 27 ~ 11. 1	• 포장인쇄기법 및 기타 포장기법	08. 10. 27	08. 11. 8
제 7 주	08. 11. 3 ~ 8	• 식품 · 의약품 포장기법	08. 11. 3	08. 11. 15
제 8 주	08. 11. 10 ~ 15	• 포장기계	08. 11. 10	08. 11. 22
제 9 주	08. 11. 17 ~ 22	• 포장과 환경	08. 11. 17	08. 11. 22
제10주	08. 11. 24 ~ 29	• 물적유통 및 포장디자인 · 마케팅	08. 11. 24	08. 12. 6
제11주	08. 12. 1 ~ 6	• 포장시험 및 포장관련법규	08. 12. 1	08. 12. 13
종합시험		• 종합시험문제 발송	08.12. 8	08. 12. 20
최종심의 완료				09. 1. 6
수강자 통보(심의통과)				09. 1. 9
수강자 소집교육 및 관리사증 수료		• 오후 : 오리엔테이션 및 관리사증 수여		09. 1. 22

후, 합격자에 한해 포장기술관리사증을 수여한다.

포장기술관리사 합격 심의 기준은 레포트 제출 점수(5점), 레포트 질적 평가(60점), 종합시험(35점)으로 구성된다.

수강료는 일반 포장관련 기업의 경우 28만원,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는 22만원이며 포장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15만원이다.

제10기 포장기술관리사 합격자들에게는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증이 수여되는 등 국내 포장산업의 취업, 이직 등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강화 및 제도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의는 (사)한국포장협회(전화 02-2026-

8655/9, 팩스 02-2026-8660 담당 김은혜)로 하면 된다.

(주)태신인팩
창사 40돌 기념 리셉션 개최
녹색환경 경영에 주력

(주)태신인팩(대표이사 서명현)은 지난 달 25일 조선히텔에서 창사 40돌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명현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태신인팩이 오늘 불혹의 나이로써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있기 까지는 어느



▲ 태신인팩 창사 40돌 기념리셉션 개최

한 사람의 노력으로서 얻어 진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여러 부문에서 함께 힘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선배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태신인팩은 60년대 말 작은 시작으로 현재까지 오직 한길을 걸어 왔다"고 전하면서 "포장 인쇄산업도 지구 온난화 억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문산업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파트너로서 저희와 거래하는 회사는 녹색환경 부문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신인팩은 (주)경신, 만로랜드, (주)만나 P&B 등의 거래업체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1968년 태성공업사로 창립된 태신인팩은 그동안 화장품 패키지를 비롯한 정교하고 아름다운 인쇄물을 제작하면서 최고의 인쇄품질 추구는 물론 기업의 철학과 경영, 종업원들의 근무환경 또한 최고를 지향해 왔다.

특히 세계 최상의 설비 사용과 신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Prepress를 비롯하여 Press, Finishing & Converting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상의 설비 사용과 설비부문의 선진화, 첨단화를 실현하고 있다.

SKC(주)
HPPO 공법 적용해 PO 상업생산 성공
 국내 PO 수요량의 90% 이상 공급 가능

SKC(주)(대표이사 박장석)가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PO(프로필렌옥사이드)를 생산하는 기술

인 HPPO 공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지난 7월 23일 밝혔다.

특히 HPPO 공법은 종전의 PO 생산방식과는 달리 고농도 폐수나 염소 부산물 등이 생기지 않는 친환경 기술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것이 SKC측의 설명이다.

SKC는 울산공장에 2천억원을 투자해 HPPO 공법을 적용한 연산 10만톤 규모의 PO공장을 건설하고 최근부터 본격적인 PO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생산된 PO제품에 대한 고객사들의 테스트 결과, 품질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됐다.

HPPO 기술은 기존의 PO 생산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일류기업들이 앞다투어 개발해온 최신 기술로 SKC가 이 HPPO 생산기술을 적용한 공장을 건설하고 세계 최초로 상업생산에 성공함으로써 공정기술 및 운전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

SKC는 2006년 5월 독일의 에보닉社(Evonik), 우데社(Udhe)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만에 상업화에 성공했다.

보편적인 생산 기술인 PO/SM 병산공정은 PO와 SM(스티렌모노머) 두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며, 중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클로로히드린기술은 염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이에 반해 HPPO 기술은 PO만을 생산해 경제적이면서 공정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방식에 비해 훨씬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며, 이 때문에 글로벌 메이저社들도 이 기술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C는 PO 연산 10만톤 생산능력을 가진

HPPO 공장 건설로 총 28만톤의 연간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내 PO수요량(30만톤)의 61% 공급에서 향후 90% 이상 공급할 수 있게 되며, 2천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 및 수입대체효과도 기대된다.

SKC는 내년까지 30% 생산성 향상 및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즉 HPPO 공장의 상업생산에 이어 곧바로 기존공장의 세계 일류 수준의 엔지니어링 및 운전 기술을 HPPO 공장에 접목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0만톤 생산능력의 HPPO 공장을 공정 효율 제고 등의 노력으로 금년 중 20% 내년 1분기까지 30%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해외시장도 한층 빠르게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SKC는 현재 연간 약 2천억원의 수출 규모를 갖고 있으며 HPPO 공장 신설에 따라, 중국, 동남아 등 PU(폴리우레탄) 성장시장에 대한 수출을 연간 6백억원 이상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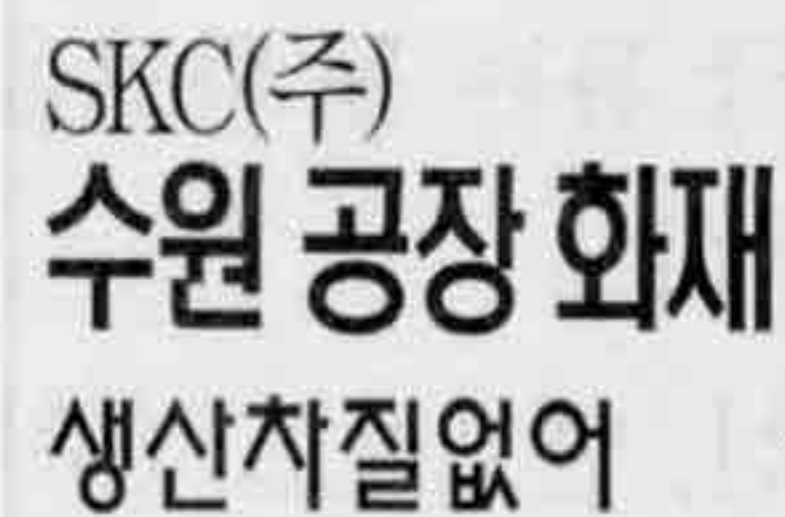
또한 이번 세계 최초 HPPO 상업화를 계기로 국내 생산능력은 2011년 상반기까지 연산 40만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40만톤의 추가 증설도 검토 중이다.

SKC는 이러한 국·내외 증설을 통해 아시아 PU(폴리우레탄)시장의 리더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PO는 Polyol(폴리올), Propylene Glycol(프로

필렌글리콜) 등의 원료로 사용돼 자동차의 내장재, 냉장고 및 LNG 선박용 단열재, 건축용 자재, 합성수지, 페인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초 원료로 매년 5% 이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PO공장의 건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예상된다.



SKC(주)(대표이사 박장석) 수원 PET필름 공장이 지난 달 12일 화재에도 불구하고 제품생산에 차질없이 정상가동 중이다.

SKC 수원 PET필름 공장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오전 10시 50분께 공장 내 원료배합 설비에서 불이나 40여분 만에 진화된 후 오후 3시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화재로 PET필름 생산라인 총 19개 중 2개 라인이 불에 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화재 당시 불에 탄 2개 라인은 가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제품생산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SKC 수원 PET필름 공장은 연간 설비 가동률이 70~85%(평균 4~5개 라인 정지 상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장관계자는 "일부 라인이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제품생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PET 필름 생산공정은 주원료를

배합해 고체 칩(Chip)을 생성한 뒤, 이를 늘려서 PET필름 제품을 완성하게 된다”면서 “화재는 원료배합 과정에서 빚어졌고, 정확한 화인은 경찰이나 소방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원 PET필름 공장 화재로 2개 라인의 원료배합 생산설비와 내부 3백30m²가 불에 탔고, 5천여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냈다.

한국포장기술연구소
Slitting · Winding 세미나 개최
 신재료 Slitter 기술과 Trouble 대책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가 이번 달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해외전문가 초청 Slitting · Winding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동안 코팅, 라미네이팅, 프린팅 등의 가공 기술을 근간으로 일반 제품부터 고부가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컨버팅 업계와 이들 제품의 소재가 되는 플라스틱 필름, 호일, 제지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Slitting · Winding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최근, 고기능성과 고가의 신재료인 전자재료나 광학재료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최종 제품 상태의 완벽화, 전과정 중 최후 공정으로서 제품의 로스 방지가 지상과제로 대두돼 Slitting · Winding의 기술은 이들 제품의 제조 핵심기술과 같이 인식되고 또한 그 기술도 중요

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기능성 신재료 메이커, 슬리터 제작자, 필름, 박, 종이 · 판지 제조업체 및 컨버팅 업체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中村 씨가 강사로 초빙됐다.

中村 隆(Takashi Nakamura)는 2006년 (株)加工技術研究會가 주최한 ‘高機能 · 新材料’를 위한 Slitter 기술과 Trouble 대책’을 비롯해 ‘신기능성재료전 전시회’와 동시개최된 포럼에서 ‘고기능재료를 위한 Slitter 기술과 Trouble 대책’ ‘Slitter · Winder의 기초와 권취제어기술’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개인컨설턴트로 슬리터 전문가이다.

이번 강연은 슬리터의 분류, 슬리터의 기계구성, 슬리터 앞 장치, 슬리팅 기술, 권취구동(장력), 권취 접압방식과 제어, 권취축수, 권취 제품의 품질과 검사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화 : 02)2026-8166

영동군
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개발
 전자상거래, 택배시장 경쟁력 확보

택배전용 포도 포장재가 개발돼 보다 안전하게 신선한 포도를 소비자에게 보낼 수 있어 농가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동군은 안전한 포도 택배유통과 농 · 특산물 이미지 홍보를 위해 지난해 ‘2007년 포도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포도택배전용 포장재, 일명 ‘공중부양식’ 택